무주군, '별빛시네마, 불꽃 낙화의 밤'

덕유산국립공원 일원서 9·16일 무주안성낙화놀이·11~15일 야외 영화소풍 개최

오는 8월 9일부터 16일까지 무주덕유산국립공원 일원에서 '별빛시네마, 불꽃 낙화의 밤(이하 별밤)'을 즐길 수 있겠다.

'별밤'은 '2025 야간관광진흥도시'로 선정된 무주가 지역의 자연·인문 자원을 활용해 지역을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영화와 전통 놀이, 도서 등 문화 콘텐츠를 활용한 체류형 탐방 프로그램이라는 점에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에 따르면 8월 9일과 16일 토요일 밤 8시 30분부터는 구천동 계곡에서 '무주안성낙화놀이'가 재연되며, 8월 11일부터 14일까지 매일 저녁 7시 30분, 그리고 15일 저녁 6시 30분 덕유산국립공원 덕유대야영장 소집회장에서는 야외 영화소풍을 즐길 수 있다.

11일에는 2024년 12월 개봉작 배구 소재의 한국 영화 〈1승〉이 상영된다. 제52회 로테르담 국제영화제 빅 스크린 경쟁 부문 초청작이기도 했던 이 영화는 신연식 감독이 연출하고 송강호, 박정민 배우가 열연했다.

12일 상영하는 〈시간을 달리는 소녀〉(2007)는 온 가족이 볼 수 있는 애니메이션으로 30회 일본 아카데미상 최우수 애니메이션 작품상, 31회 안시 국제 애니메이션 페스티벌 장편영화 특별상에 빛나는 수작이다.

13일에는 임순례 감독이 메가폰을 잡고 김태리, 류준열 배우가 출연해 화제를 불러 모았던 〈리틀 포레스트〉(2018)를 상영한다. 고향으로 돌아온 주인공이 직접 키운 농작물로 만든 먹거리를 즐기며 친구들과 특별한 사계절을 보내는 이야기를 그린 영화다.

무주안성낙화놀이

야외 영화소풍

〈로봇드림〉은 2024년에 개봉된 애니메이션으로 주인공 '도그'와 반려 '로봇'의 이야기를 그린 작품. 51회 애니어워드 최우수 독립장편 애니메이션작으로 선정된 것을 비롯해 38회 고야상 각색상과 애니메이션상 2관왕에 올랐다.

광복절인 15일에는 시인 윤동주와 그의 영원한 벗이자 사촌형이었던 독립운동가 송몽규의 일대기를 그린 영화 〈동주〉(2016) 상영과 함께 영화 토크 '윤동주의 별의 노래'를 함께 즐길 수 있다. 이준익 감독이 연출을, 강하늘 배우와 박정민 배우가 출연했다.

이날 영화 토크는 역사 크리에이터 이영(구독자 수 30만 유튜브 채널 역사돋보기 운영)이 진행할 예정이어서 깊이와 재미를 더한 역사 이야기에 큰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현우 무주군청 관광진흥과장은 "한여름 무더위를 덕유산 깊은 골에서 날려 보시라"며 "구천동 계곡에서 즐기는 낙화놀이의 특별함, 산속에서 즐기는 영화소풍의 재미를 평생 잊지 못할 것"이라고 전했다.

8월 12일부터 16일까지(10:00~17:00) 덕유산국립공원 탐방안내소에서는 영화 도서관도 운영된다. 이곳에는 영화 관련 도서 50여 권이 비치돼 있어 개장 시간 내 자유 열람이 가능하다.

/무주=전문선 기자

개관 100일 '남원 피오리움' 무료개방

8~9일 100일 기념 이벤트

남원시는 오는 8일부터 9일까지 이틀간 미디어아트 복합문화공간 피오리움(Fiorium) 개관 100일을 기념하는 무료입장 이벤트를 운영한다.

이번 무료입장은 개관 후 누적 이용객 6만여 명을 기록한 피오리움의 성장을 시민과 축하하기 위해 기획한 특별 행사로, 9일에는 피오리움 및 달빛정원의 개관식을, 사랑의 광장에서는 2025 남원요천 물축제와 연계한 달빛콘서트가 열린다.

9일 개관식은 오후 5시 30분부터 피오리움 실내와 야외 정원에서 열리며, 전시투어, 축하 공연, '잇다 행렬' 퍼포먼스 등이 함께 진행, 행사에는 국회의원, 시의회 의장,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 등 주요 내빈과 시민을 대표하는 200여 명이 참석할 예정이다.

특히 이번 100일 기념 이벤트는 기존 관광 동선을 넘어, 남원 도심 속 전통과 디지털, 자연과 기술이 공존하는 새로운 문화체험을 제공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최경식 남원시장은 "피오리움은 단순한 전시관이 아닌, 남원의 미래 관광을 열어가는 거점이자 문화 플랫폼이라며, 이번 무료입장을 통해 더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즐기고 머물 수 있는 남원의 가능성을 확인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북교육청, 전북음악아카데미 여름캠프 진행

전북특별자치도교육청은 6~8일 3일간 전북대학교 예체능관에서 전북음악아카데미 여름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6일 전북교육청에 따르면 음악에 관심과 재능이 있는 도내 초·중학생에게 전문적인 음악교육과 다양한 예술적 경험을 제공하고자 6년째 운영하고 있다.

전북대학교 산학협력단이 위탁 운영하는 전북음악아카데미는 피아노, 현악, 관악, 성악/작곡(초등제외) 총 4개 분야에 도내 초등학교 2학년부터 중학교 3학년 학생 52명이 참여하고 있다.

특히 여름캠프는 사흘간 집중 운영되는 숙박형 프로그램으로 오케스트라, 오페라 만들기, 피아노·관악·현악 마스터클래스를 비롯해 '미술관 속 챔발로 이야기', '슈만의 트로이메라이' 등의 이론 강의도 포함돼 있다.

또한 공연장 체험과 캠프에서 익힌 내용을 바탕으로 개인 연습을 통해 갈고닦은 실력을 선보이는 학생 콘서트도 운영된다.

/장은성 기자

남원시, 달빛정원 개관 100일 기념 '달빛콘서트' 9일 개최

남원시가 오는 9일 오후 7시, 사랑의 광장에서 '달빛콘서트'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달빛정원 개관 100일을 기념하고, 2025 남원 요천 물축제와 연계해 열리는 대규모 여름밤 축제로 단순한 기념식이나 콘서트를 넘어, 정책 메시지와 시민참여가 공존하는 새로운 형태의 문화행사로 기획됐다.

2부로 나뉘어 진행되는 달빛콘서트는 1부는 전통예술공연단 '아퀴'가 남원의 정서를 담은 무대로 콘서트의 서막을 열고, 이어지는 비전 선포식에서는 남원시가 추진한 관광 전환의 흐름과 향후 비전을 시민과 함께 공유한다.

2부는 국내 정상급 아티스트 코요태, 알리, 영지, 이혁이 출연해 여름밤의 열기를 최고조로 끌어올릴 예정이며, 공연 말미에는 EDM DJ 파티가 이어져 젊은 세대와 가족 관람객 모두가 함께 즐기는 한밤의 페스티벌로 마무리된다.

이번 달빛콘서트의 핵심은, 단순한 공연·축제를 넘어 남원 관광의 미래를 문화 속에서 선포한다는 점으로, 콘서트와 함께 진행되는 '남원관광 비전선포식'에서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가는 체류형 관광도시 남원의 방향성을 현장에서 생생하게 공유한다.

또한 행사에 앞서 진행되는 '잇다 행렬 퍼포먼스'는 달빛정원에서 사랑의 광장까지 이어지는 시민 참여형 거리 행진을 진행, 폐자원의 재생이 시민, 문화, 미래를 잇는 남원 관광의 상징이자 출발점임을 시각적으로 보여줄 예정이다.

/남원=김기두 기자

전주×제주 교류전 '사이의 언어'

전주문화재단, 9월 14일까지 팔복예술공장서 개최

전주문화재단(대표이사 최락기)은 8월 7일부터 9월 14일까지 전주 팔복예술공장에서 전주×제주 교류전 '사이의 언어'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제주문화예술재단(이사장 김석윤)과 공동으로 진행하는 이번 교류전은 전주작가가 제주에서, 제주작가가 전주에서 지역을 교차해 전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두 도시 작가 12인이 한 공간에서 함께 작품을 선보이는 새로운 형식으로 진행된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전시를 넘어선 지역 간 실질적 예술 교류의 의미를 다시금 되새기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6일 재단에 따르면 '사이의 언어'는 앞서 7월 9일부터 8월 2일까지 제주 '예술공간 이아'와 '산지천 갤러리'에서 선보여 호응 속에 마무리됐다. 이번 전주는 그 흐름을 이어가는 두 번째 무대로, 제주와 전주 작가들의 다채로운 예술 세계를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는 특별한 기회다.

전시에서는 전주와 제주라는 서로 다른 환경과 문화를 기반으로 활동해 온 작가들이 각자의 시선과 감각으로 풀어낸 다양한 작품을 통해 관람객과 소통한다. 더불어, 참여 작가들이 전주의 역사·환경·문화를 직접 체험하고 공유하는 교류 프로그램도 함께 마련돼 예술적 교감의 깊이를 더할 예정이다.

최락기 대표이사는 "제주에 이어 전주에서 전시를 선보일 수 있게 되어 매우 뜻깊다"며 "서로 다른 색채를 지닌 전주와 제주 작가들의 작품을 직접 접하는 특별한 기회인 만큼 많은 분이 전시장을 찾아와 주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석윤 제주문화예술재단 이사장은 "이번 전시는 서로 다른 지리적, 환경적 조건을 가진 예술가들이 한데 모여 예술의 언어로 새로운 대화를 나누는 자리"라며"전주와 제주가 만나 만들어내는 예술적 에너지가 많은 이들에게 울림으로 다가가길 바란다"고 말했다.

전시는 무료로 관람할 수 있다. 운영시간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매주 월요일은 휴관이다.

/장은성 기자

전주매일 캠페인

춘향전의 무대

남원 광한루

광한루는 조선시대 이름난 황희정승이 남원에 유배되었을 때 지은 것으로 처음엔 광통루(廣通樓)라 불렀다고 한다. 광한루(廣寒樓)라는 이름은 세종 16년(1434) 정인지가 고쳐 세운 뒤 바꾼 이름이다. 지금 있는 건물은 정유재란 때 불에 탄 것을 인조 16년(1638) 다시 지은 것으로 부속건물은 정조 때 세운 것이다.

규모는 앞면 5칸·옆면 4칸이며 지붕은 옆면에서 볼 때 여덟 팔(八)자 모양을 한 팔작지붕이다. 누마루 주변에는 난간을 둘렀고 기둥 사이에는 4면 모두 문을 달아 놓았는데, 여름에는 사방이 트이게끔 안쪽으로 걸 수 있도록 해 놓았다. 또한 누의 동쪽에 있는 앞면 2칸·옆면 1칸의 부속건물은 주위로 툇마루와 난간을 둘렀고 안쪽은 온돌방으로 만들어 놓았다. 뒷면 가운데 칸에 있는 계단은 조선 후기에 만든 것이다.

춘향전의 무대로도 널리 알려진 곳으로 넓은 인공 정원이 주변 경치를 한층 돋구고 있어 한국 누정의 대표가 되는 문화재 중 하나로 손꼽히고 있다.

〈글: 문화재청 제공〉